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민경제 공헌도 분석*

이 동 기**

이 제 호***

.....

본 논문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규명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에서 발간하는 「외국인투자기업현황」에 수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건전성, 경제활성화 기여도, 무역수지/기술이전 기여도를 8가지 세부 항목으로 분류하여 각 개별기업 수준에서 측정함으로써 상대적 공헌도 순위를 매겨보았다. 또한 각각의 차원에 대해 현실적으로 국민경제에 공헌하는 비중을 고려, 차별화된 가중치를 부과하는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각 부문에 있어서 어필텔레콤, 한국화나, 한국지케이엔, 캡스, 한국코카콜라보틀링, 한국바스프 등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가중치를 부여한 종합공헌도를 산출한 결과에서는 삼성코닝, 한국바스프, 한국코카콜라보틀링 등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별 외국인기업 차원에서의 국민경제 공헌도 분석을 통해 국민경제 차원에서 바람직한 투자기업을 판단하는 자료와 함께 외국인투자유치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

I. 연구의 목적과 배경

1. 연구의 목적

IMF 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 1998~2000년 사이 상당한 규모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최근에는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의 효과에 대한 논쟁이 벌어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rheedong@plaza.snu.ac.kr)

*** (주)인터젠컨설팅그룹 수석컨설턴트(jhlee@intergen.co.kr)

지고 있다. 이러한 논쟁이 시사하는 기본적 문제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분석 자료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투자 전체를 바람직하다 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경제에 어떠한 공헌을 하고 있는가를 보다 심층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경제에 어떠한 공헌을 하고 있는가를 개별기업 수준에서 파악하여 상대적 공헌도 순위를 매겨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총량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거시적 접근을 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개별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민경제에 어떠한 공헌을 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미시적인 접근을 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배경

1)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외환의 안정적인 공급원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8년을 '투자유치 원년'으로 삼아 2003년까지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누계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10%대로 높이겠다는 중기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을 통해 투자환경 개선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투자 유입액은 신고기준으로 98년에 88.5억 불, 99년에는 155.4억 불, 2000년에는 156.9억 불을 기록하였다. 1997년말 88억 불에 불과하던 외환보유고는 1998년 말 485억 불, 1999년 말 740억 불에 달하였으며, 2000년 말에는 950억 불을 넘어섰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외환보유고 증가분에 대한 기여도는 1998년도 397억 불의 13%, 1999년도 255억 불의 41%를 기록하였으며 외환위기 이후 2년(97.12~99.12) 동안 증가된 가용외환보유고 652억 불의 24%인 156억 불이 외국인직접투자에 기인하였다. 규모면에서 외국인투자 유입액은 199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제규모(GDP)대비 외국인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5%로 선진국 평균의 11%, 개도국 평균 17%, 싱가포르 82%, 말레이시아 38%, 중국 24%보다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외국인직접투자의 국민경제적 효과는 자금유입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투자유치국의 산업구조고도화, 경제성장, 고용창출, 수출경쟁력 강화, 낙후지역개발, 산업구조조정효과 등 긍정적 제효과가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기업의 건전한 경쟁자로서 우리 기업의 선진기술력 및 경영노하우 습득 등 국내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 외국인직접투자의 동향

(1) 전반적인 투자추이

1993년 이후 외국인투자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1997년말 외환·금융위기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급격히 감소하다가 1998정부의 적극적인 투자환경 개선과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세에 힘입어 1998년 88.5억 불에서 2000년에는 156.9억 불을 넘어서게 되었다.

(2) 투자유형별

투자유형별로는 구주취득방식의 직접투자형태는 1997년 10%에서 1998년 14.1%로 증가하였고 1999년 15%를 유지하다가 2000년에는 8.1%로 감소하였다. 이는 추가투자(전체투자 중 63.5%)가 확대되면서 신주발행에 의한 증자와 신규법인 설립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구주취득비중이 줄어든 것이다. 2000년에는 신주취득방식에 의한 투자가 89.7%의 비중을 차지하고 증가율도 11.9%에 달하여 신주취득방식이 대표적

〈표 1〉 연도별 외국인투자현황

(단위: 백만불, %)

년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금액	1,044 (16.8)	1,317 (26.1)	1,941 (47.4)	3,203 (65.0)	6,971 (117.6)	8,852 (27)	15,541 (75.6)	15,690 (2.6)
건수	273 (17.2)	414 (51.6)	556 (34.3)	596 (7.2)	1,055 (177.0)	1,399 (32.6)	2,102 (50.3)	4,136 (96.8)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신고기준

자료: 산업자원부 투자통계 D/B

〈표 2〉 투자유형별 현황

(단위: 백만불)

구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신주취득	946	6,208	1,109	6,528	1,829	12,724	2,755	14,067
구주취득	90	699	232	1,244	235	2,333	113	1,277
장기취득	19	640	57	1,083	28	637	0	346

주: 신고기준. 97년 2월부터 우호적인 형태의 구주취득 허용, 98년 5월 외국인의 국내기업 기준주식 취득 전면 자유화 (적대적 M&A 허용).

자료: 산업자원부 투자통계 D/B

인 투자형태로 나타났다.

(3) 투자업종별

외환위기는 그 동안 증가세에 있던 서비스부문의 투자를 감소시키고 제조업부문의 투자유입을 증가시켜 1998년도 전체 투자유입액 중 제조업의 비중이 과반수를 넘는 64.8%에 이르렀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진정되면서 이전의 투자비율을 되찾아 이듬해인 1999년도에는 제조업이 45.9%, 2000년에는 45.4%로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표 3〉 업종별 투자비중

(단위: 백만불, %)

업종	1996	1997	1998	1999	2000
제조업	1,930 (60.3)	2,347 (33.7)	5,735 (64.8)	7,130 (45.9)	7,122 (45.4)
서비스업	1,254 (39.2)	4,567 (65.5)	2,938 (33.2)	8,357 (53.8)	8,566 (54.6)
기타(농축수산, 광업 등)	18 (0.5)	55 (0.8)	179 (2.0)	54 (0.3)	2 (0.0)

주: 신고기준, ()은 비중

자료: 산업자원부 투자통계 D/B

(4) 투자국가별

일본으로부터 투자유입이 대폭 증가하는 반면 미국, 유럽지역으로부터 투자유입은 감소하였다. 일본의 투자는 90년대 들어 투자선을 중국, ASEAN 등으로 전환하면서 국내유입이 다소 줄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다시 증가세로 반전하여 1999년에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11.3%를 차지하였으며 2000년에는 15.6%의 비중을 차지하여 39.9%의 증가율을 보였다.

미국으로부터 투자는 2000년 11월 기준으로 217.9억 불로 1999년 동기대비 38.0%가 감소하였다. 최근 케이만,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지역으로부터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중 상당 부분이 미국기업의 투자인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감소하였다고 할 수 없다.

유럽연합은 1998년까지 투자규모가 미국에 비해 약간 적었으나 1999년도에는 거의 미국의 2배 규모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0년도 11월 기준 29.4%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30.0%가 감소하였다.

(5) 투자규모별

1998년 이후 5백만 불 미만의 중소규모의 투자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투자비중이

〈표 4〉 주요국별 외국인투자현황

(단위: 백만불, %)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일본 (비중)	255 (8.0)	266 (3.8)	503 (5.7)	1,750 (11.3)	2,449 (15.6)
미국 (비중)	876 (27.3)	3,190 (45.7)	2,976 (33.9)	3,739 (24.1)	2,916 (18.6)
유럽연합 (비중)	892 (27.9)	2,305 (33.0)	2,889 (32.6)	6,261 (40.3)	4,607 (29.4)
기타 (비중)	1,180 (36.8)	1,210 (17.4)	2,484 (28.1)	3,791 (24.3)	5,718 (36.4)

기타지역은 버뮤다,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등의 조세회피지역을 포함.

주: 신고기준

자료: 산업자원부 투자통계 D/B

〈표 5〉 투자규모별 외국인 투자건수 현황

(단위: 건수, %)

투자규모	1998	1999	2000
1억 불 이상	20 (1.4)	43 (2.0)	31 (0.8)
1천만 불~1억 불	108 (7.7)	142 (6.8)	131 (3.1)
5백만 불~1천만 불	59 (4.2)	71 (3.4)	96 (2.3)
5백만 불 미만	1,212 (86.7)	1,846 (87.8)	3,878 (93.8)

1999년도에 87.8%에서 2000년도에는 93.8%로 증가하였다. 투자금액으로 보았을 때 5백만 불 이하의 중소기업 투자는 1997년 548백만 불에 이어 1998년에는 594백만 불, 1999년에는 758백만 불, 2000년에는 1,129백만 불이었다.

II. 연구모형의 설계

1. 외국인 직접투자의 국민경제적 효과

외국인직접투자가 투자유치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다. 먼저 외국인직접투자가 투자유치국에 미치는 국민경제적 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framework을 제시하는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Hood & Young(1979)은 외국인직접투자가 현지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i) 자본, 기술, 경영과 같은 자원의 이전 효과, ii) 무역 및 국제수지에 대한 효과, iii) 경쟁효과, iv) 현지국 경제 자율성 효과로 구분하였다. Caves(1996)도 Hood & Young(1979)과 유사한 관점에서 외국인투자가 투자유치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자원이전효과(resource transfer effect)이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자본, 기술, 경영에 있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요소들을 투자유치국으로 이전하

게 된다. 둘째, 무역 및 국제수지 효과(trade & balance-of-payment effects)이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성향으로 인해 현지국의 무역 및 국제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셋째, 경쟁효과(competition effects)이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은 국내로 유입되는 초기에는 거의 대부분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발휘하지만 자신의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면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World Investment Report(1999)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현지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자본형성, 기술이전, 수출시장접근, 선진경영기법과 지식의 이전, 환경경영의 촉진을 들고 있다. 또한 WTO 무역과 투자 작업반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영향을 자본형성, 기술 및 경영노하우 이전, 수출시장 접근, 기업가 양성 및 전후방 연계, 경쟁, 고용, 국제수지 및 거시경제 안정을 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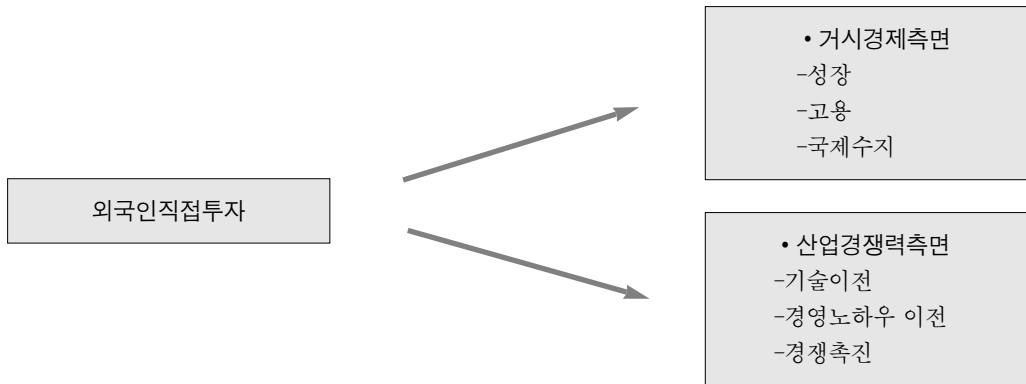
위와 같은 연구들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국민경제적 효과로서 공통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것은 자본형성을 통한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효과, 기술 및 경영노하우 이전 효과, 수출시장 접근성을 통한 무역수지 효과로 집약될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의 국민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들은 주로 경제성장 [Lee, Rana & Iwasaki, 1986; Wang & Blomstrom, 1992; Fry, 1994; Borensztein, 1995; Balasubramanyam, Salisu & Sapsford, 1996; 송경석, 1998; Shan, Tian & Sun, 1999], 고용 [Reuber et al., 1973; Svedberg, 1977; McAleese & Counahan, 1979; Chen, 1983], 기술 및 경영노하우 이전 [Findlay, 1978; Dunning, 1998; Child, Faulkner & Pitkethly, 2000], 수출입 [Kojima, 1978, 1985; Lipsey, 1995, 1998; Fry, 1997; Thomsen, 1999] 등과 같은 측면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총량이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여러 효과 중에서 공통적으로 중시되고 있는 효과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경제성장효과

외국인직접투자는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을 통해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수요측면에서 보면 외국인직접투자는 국산 투자재의 수요를 증대시키고 생산을 확대시켜 성장에 기여한다. 이러한 수요증대를 통한 성장에의 긍정적 효과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그림 1)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유치국에 대한 국민경제적 효과

설비투자와 생산에 필요한 자본재와 원자재를 한국시장 내부로부터 조달하는 정도가 증가할수록 커진다. 한편, 공급측면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총고정자본형성을 증가시켜 국내총생산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2) 고용창출효과

외국인직접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국내경제상황, 투자의 형태 및 구체적인 생산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대체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노동수요를 유발하여 현지국의 생산인력과 부대인력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우선 직접적으로는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이 현지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과 경영관리 등에 필요한 현지인력을 채용함으로써 고용이 창출된다.

또한 간접적으로는 전후방연계업종의 생산증가와 함께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이는 전방고용효과와 후방고용효과로 나누어진다. 전방고용창출 효과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의 유통·분배 등과 관련된 현지기업의 고용이 확대되는 효과를 의미하며 후방고용창출 효과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중간재,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현지기업의 고용이 확대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그밖에도 외국인투자는 신기술 및 선진경영기법 등의 도입을 통해 투자대상국의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고용창출효과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방식, 현지화의 정도, 그리고 투자의 목적 및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현지노동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노동집약적인 생산거점형 투자의 경우 현지 내수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접근형의 자본집약적 투자보다 노동창출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또한 생산품이 그 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품목이라면 고용창출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고용효과는 투자유치국의 노동수요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된다. 즉, 일자리가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창출효과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3) 무역수지 효과

외국인직접투자가 무역수지에 미치는 효과는 수출과 수입에 미치는 효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수출유발 효과와 수출대체 효과로 나누어진다. 수출유발 효과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하며, 수출대체 효과는 원래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했더라면 우리나라가 가능했을 자본재 및 원자재의 수출이 외국인투자기업이 생산기지를 우리나라로 옮김으로써 자본재 및 원자재의 수출이 감소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수입에 미치는 효과도 수입유발 효과와 수입대체 효과로 나누어진다. 수입유발효과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자본재와 원자재의 수입이 유발되는 효과이다. 수입대체 효과는 내국인이 소비하는 제품의 일정 부분이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대체되는 효과를 말한다. 수입유발 효과는 주로 자본재와 원자재 등 중간재의 경우에, 수입대체 효과는 주로 소비재 등 최종재의 경우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인직접투자는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를 통하여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친다. 앞에서 언급한 수출대체 효과와 수입유발 효과는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수출유발 효과와 수입대체 효과는 무역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외국인직접투자가 무역수지에 미치는 효과는 투자동기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수출지향적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 현지국의 수출을 증가시킴으로써 무역수지 개선효과를 가지게 되나 내수지향형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 현지기업의 생산이 증가할수록 본국에서 원자재, 부품 등의 수입이 증가하여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효

과를 가져올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이 투자대상국에 진출하는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제3국 시장으로의 수출이나 본국으로의 역수입을 위해서 진출하는 경우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국내생산비용이 많이 드는 선진국기업의 경우 투자대상국의 저임금 등 낮은 생산비를 이용하여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다른 국가로 수출하기 위해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대상국의 수출증가에 기여한다.

4) 기술이전 효과

외국인직접투자는 현지국에 첨단기술의 이전을 통하여 기술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게 된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기술이전 효과는 직접적인 기술이전 효과와 간접적인 기술이전 효과로 구분된다. 직접적인 기술이전 효과는 외국인직접투자의 모기업이 현지국에 설립한 자회사에 직접적으로 기술을 공여함으로써 외국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고 간접적 기술이전 효과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모기업으로부터 시설재의 도입을 통해 그 재화에 체화된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이전된 기술은 여러 경로를 통해 국내 다른 기업에 전파되는 기술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갖게 된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의 기술파급효과는 크게 후방연계효과(backward linkage effect), 전방연계효과(forward linkage effect), 연구개발 활동, 그리고 인력이동에 의한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후방연계효과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국의 부품업체나 설비업체로부터 부품이나 설비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현지 협력기업들에 대해 기술지원을 하는 경로에서 발생한다. 한편 전방연계효과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중간재 형태로 다른 현지기업의 완제품생산에 투입됨으로써 기술력 제고를 가져오는, 다시 말해서외국인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현지기업들이 구매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이다.

외국인직접투자는 또한 현지법인의 연구개발 활동이나 기술연수 프로그램에 의한 기술인력 양성을 통하여 인적자본에 체화된 형태로 기술을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국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하게 되면 본국의 고급연구인력이 파견되어 현지 연구인력에게 기술을 이전시켜 주기도 하지만 현지 연구인력이 직접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되어 연구인력에 체화된 형

태로 기술이 확산될 수 있다.

또한 현지국의 경쟁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보유한 지식과 정보의 수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연구개발 노력을 기울이게 됨으로써 자체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이외에도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되어 기술 및 경영기법을 익힌 경영자 및 기술인력이 다른 국내기업으로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이 창업함으로써 국내산업에 기술을 확산시키고,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이들에 대해서 창업지원을 하기도 한다.

5) 경영관행의 이전효과

외국인 직접투자는 기술이전뿐만 아니라 선진경영관행이 도입되는 효과를 가진다. 외국기업의 현지국 진출이 증가할수록 건실한 재무구조와 효율적인 경영시스템, 수익성위주의 경영 등과 같은 선진경영관행의 도입이 진행된다.

외국기업이 인수한 현지기업들은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경영프로세스도 효율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인수 후에 증자, 추가자금 유입 등으로 재무비율이 개선되었으며, 차입경영과 외형중시에서 탈피하여 수익성위주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선진기법을 활용한 결재단계 축소, 경영투명성 제고 등 경영프로세스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볼보코리아에 인수된 삼성중공업, 후지제록스에 인수된 코리아제록스, 미국계 종자회사인 세미니스에 인수된 흥농 종묘, 코메르츠 은행이 지분참여한 외환은행 등 외국기업이 경영에 참여한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재무 구조가 개선되었다. 또한 다각화된 사업부문에서 탈피하여 핵심역량에 기초한 경쟁력 있는 사업부문으로 집중하고 외형성장위주에서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수익성위주의 경영으로 변화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의사결정단계의 축소와 권한의 위양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성과급제를 통해 실적을 중시하는 경영관행을 구축하고 근로 의욕을 자극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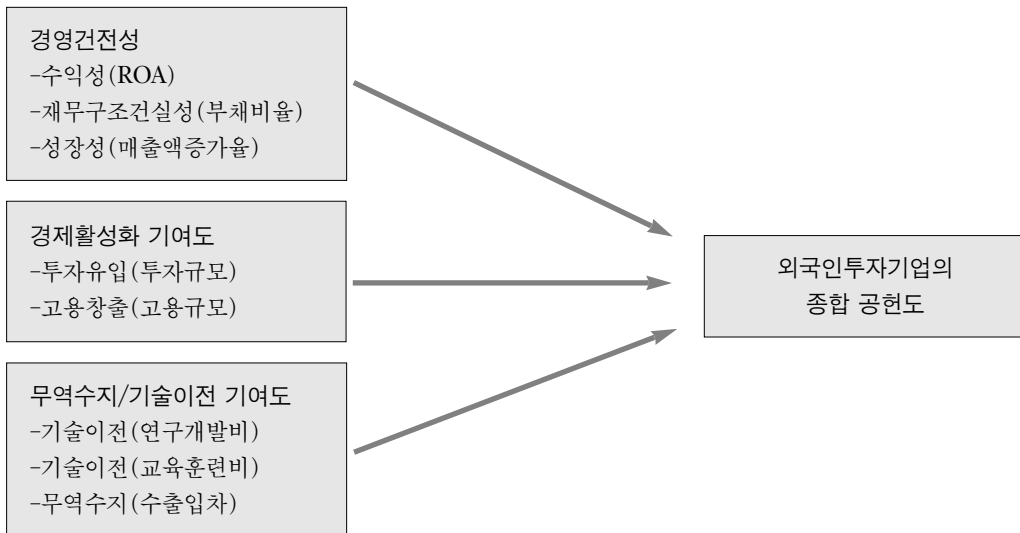
2.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민경제 공헌도 분석체계

앞에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미치는 국민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 보았다. 앞의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미시적인 측면에서 개별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민경제 공헌도 분석체계를 제시한다.

첫째, 경영건전성 차원이다. 수익성, 재무구조 건실성, 성장성과 같은 기업의 기본적인 경영상의 건전성을 중시하는 경영관행의 이전 효과라는 차원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민경제 공헌도를 평가할 수 있다.

둘째, 경제활성화 차원이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은 현지생산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투자 유입으로 인한 경제성장효과와 고용창출효과 차원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민경제 공헌도를 평가할 수 있다.

셋째, 무역수지 및 기술이전 차원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수출입 활동을 통해 현지국의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치며 현지국에서의 연구개발과 교육훈련에 투자함으로써 기술을 이전하는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무역수지효과와 기술이전효과 차원에서 외



[그림 2]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민경제 공헌도 분석모형

국인투자기업의 국민경제 공헌도를 평가할 수 있다.

3. 연구조사방법

1) 대상기업의 선정과 항목의 측정방법

본 연구는 산업자원부가 발간하는 「외국인투자기업현황(2000. 6. 30 현재)」을 모집 단으로 하여 이중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이 50% 이상, 투자금액이 100만 달러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 257개를 1차로 선정하였다. 위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중에서 투자규모 상위 2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신용평가의 KIS-LINE 자료와 움부즈맨 사무소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민경제 공헌도 분석을 위한 8가지 항목의 3년간 자료(97~99년)를 구할 수 있는 기업 104개를 최종적인 연구대상기업으로 선정하였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민경제 공헌도 분석을 위한 8가지 항목에 대한 측정방법은 <표 6>과 같다.

2) 연구분석절차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민경제 공헌도에 따른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먼저 각 세부항목별로 표준화값(standardized value)을 구하였다.

대부분의 경우(재무구조 건실성 제외)에 높은 표준화값을 가질수록 높은 순위가 매

<표 6> 항목의 측정방법

차원	항목	측정항목명	항목측정방법
경영건전성	수익성	자산순이익률(ROA)	97~99년 3년 평균 자산순이익률
	재무구조 건실성	부채비율	97~99년 3년 평균 부채비율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97~99년 3년 평균 매출액증가율
경제활성화 기여도	투자유입 고용창출	투자규모 고용규모	총투자액 총 고용인원수(99년 기준)
무역수지 및 기술이전 기여도	무역수지	순수출(수출입차)	97~99년 3년 평균 (수출액-수입액)
	기술이전	연구개발투자	97~99년 3년 평균 연구개발 지출액
	기술이전	교육훈련투자	97~99년 3년 평균 교육훈련 지출액

겨진다. 따라서 가장 높은 표준화값을 가지는 기업이 첫번째 순위로 매겨진다. 단 재무구조 건실성의 경우에는 역의 순위가 매겨진다. 따라서 가장 높은 표준화값을 가지는 기업이 마지막 순위로 매겨진다.

각 세부항목별로 기업들의 통계치가 표준화되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종합적인 공헌도 순위를 매기기 위해서 기업별 세부항목의 표준화된 통계치가 합산되고 이 합산점수에 따라 종합적인 공헌도 순위가 결정된다.

단, 세부항목별로 표준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극단치값을 조정하는 절차가 실시되었다. 이는 극단치값으로 인해 표준화값이 상당부분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성장성 항목의 경우 한국지케이엔의 매출액 증가율은 1803%인데 이러한 극단치값으로 인해 극단치값 이외의 값들이 차별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극단치의 기준은 그 다음 순위의 값과 2배 차이를 보이는 경우로 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른 극단치 값은 부채비율 최하위값, 매출액증가율 최상위값, 투자규모 최상위와 차상위값, 고용규모 최상위값, 연구개발투자 최상위값, 교육훈련투자 최상위값, 수출입차 최하위값이 해당된다.

이러한 극단치는 그 다음 순위의 값으로 조정한 후 표준화값을 구하였다. 비교를 위해 극단치값을 조정하지 않은 경우의 종합 공헌도 총점과 순위를 부록에 수록하였다.

또한 경영건전성, 경제활성화, 무역수지 및 기술이전이라는 세가지 차원에 대해 각각 가중치를 달리 주는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경제활성화 기여도와 무역수지 및 기술이전 기여도 차원의 경우에는 국민경제 공헌도가 높다고 인정되나 경영건전성 차원의 경우에는 국민경제 공헌도 측면에서 그 효과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중치(10점 만점)를 경영건전성 차원은 3을, 경제활성화 기여도와 무역수지 및 기술이전 기여도 차원은 각각 3.5의 가중치를 두는 방식과 가중치를 경영건전성 차원은 2를, 경제활성화 기여도와 무역수지 및 기술이전 기여도 차원은 각각 4의 가중치를 두는 방식으로 종합적인 공헌도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부록에 수록하였다.

III. 외국인투자기업의 공헌도 분석

1. 연구대상 기업의 개요

1) 투자규모별

투자규모는 5천만 달러 이하가 76.9%로 가장 많았고, 5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사이가 9.6%, 1억 달러 이상이 13%를 나타내었다. 평균 투자 규모는 5천 7백만 달러였다(〈표 7〉 참조)

2) 투자국가별

지역별로는 아시아 4개국, 북미 3개국, 유럽 9개국이다. 아시아 지역은 일본이 23개의 기업으로 가장 많고, 북미 지역은 미국 기업이 33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럽은 비교적 다양한 구성을 보이고 있는데, 주요국을 살펴보면 독일에서 11개 기업, 네덜란드에서 8개의 기업, 영국·프랑스에서 각각 5개의 기업이 투자를 하고 있었다.

각각 대륙별 분포를 살펴보면, 아시아가 28.8%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유럽과 북미가 35.6%로 투자 기업 수에서 대등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표 8〉 참조).

3) 투자업종별

산업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이 28.8%로 가장 많고,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이 15.4%,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9.6%로 이 3개 업종이 전체투자기업의 53.8%를 차지하고 있다(〈표 9〉 참조).

〈표 7〉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규모

(단위: 달러)

규모(달러)	5천만 이하	5천만~1억	1억 이상	총합
투자 기업 수	80	10	14	104
비율(%)	76.9	9.6	13.5	100.0

〈표 8〉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가별 분포

대륙	국가구성		비율(%)
	국가	투자 기업수	
아시아(4개국)	일본	23	28.8
	홍콩	3	
	말레이시아	2	
	싱가포르	2	
	소계	30	
북미(3개국)	미국	33	35.6
	캐나다	3	
	파나마	1	
	소계	37	
유럽(9개국)	독일	11	35.6
	네덜란드	8	
	프랑스	5	
	영국	5	
	스위스	2	
	벨기에	2	
	스웨덴	2	
	덴마크	1	
	아일랜드	1	
	소계	37	
총 합		104	100.0

〈표 9〉 외국인 투자기업의 업종별 분포

산업	투자 기업수	비율(%)
화합물 및 화학제품	30	28.8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6	15.4
자동차 및 트레일러	10	9.6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8	7.7
음식료품	7	6.7
기타 기계 및 장비	6	5.8
기타	27	26.0
총 합	104	100.0

2. 경영 건전성 차원

1) 수익성(ROA)

104개의 기업 중 상위 20개의 ROA를 조사해 본 결과 어필 텔레콤이 35.36%로 가장 높았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코리아가 25.87%, 듀폰포토마스크가 19.5%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전체 ROA 평균이 1.96%임을 볼 때 이는 매우 높은 수치이며, 업종별로는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가 8개 업체 중 4개(50%)가 ROA 20위에 들어감으로써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표 10〉).

104개의 기업 중 하위 10개의 ROA를 조사해 본 결과 모두 -10 이하의 값을 나타

〈표 10〉 수익성 상위 20위 기업

순위	기 업	국 적	산 업	ROA(%)
1	어필텔레콤	미국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35.36
2	텍사스인스트루먼트코리아 주식회사	미국	도매 및 상품중개업	25.87
3	듀폰포토마스크주식회사	미국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19.50
4	한국피자헛 주식회사	네덜란드	숙박업	19.46
5	한국엡손주식회사	일본	도매 및 상품중개업	17.83
6	한국화낙 주식회사	일본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7.75
7	웰라코리아주식회사(구: 명미화장품)	독일	화합물 및 화학제품	17.21
8	로움코리아	싱가포르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15.21
9	씨멘스오도모티브주식회사	독일	자동차 및 트레일러	14.93
10	한국아이비엠주식회사	미국	도매 및 상품중개업	14.33
11	금양오츠카케미칼주식회사	일본	화합물 및 화학제품	14.05
12	한국네슬레 주식회사	스위스	음식료품	13.38
13	한국쓰리엠주식회사	미국	도매 및 상품중개업	12.56
14	카길코리아 주식회사	미국	음식료품	12.42
15	로디아코프랑주식회사	프랑스	화합물 및 화학제품	12.30
16	평화발레오	프랑스	자동차 및 트레일러	12.25
17	한국알프스 주식회사	일본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10.44
18	동우화인켄주식회사	일본	화합물 및 화학제품	10.12
19	한국암웨이 주식회사	미국	화합물 및 화학제품	10.05
20	한국신광마이क्र오에лект로닉스 주식회사	일본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9.80

〈표 11〉 수익성 하위 10위 기업

순위	기업	국적	산업	ROA(%)
95	힐티코리아주식회사	네덜란드	기타 기계 및 장비	-10.99
96	캠코	독일	자동차 및 트레일러	-11.26
97	이튼반도체주식회사	미국	도매 및 상품중개업	-11.77
98	질레트코리아주식회사	미국	도매 및 상품중개업	-12.14
99	진방철강	말레이시아	일차금속	-13.31
100	한국로버트보쉬기전주식회사	독일	자동차 및 트레일러	-14.79
101	에스케이에프한화자동차부품(주)	스웨덴	자동차 및 트레일러	-17.11
102	한국캠브로 주식회사	스웨덴	도매 및 상품중개업	-20.02
103	흥농종묘주식회사	미국	농업	-24.18
104	한국오티스엘리베이터 주식회사	미국	기타 기계 및 장비	-47.13

내고 있으며 가장 낮은 기업은 -47.13%를 보인 한국 오티스엘리베이터였다(〈표 11〉 참조).

2) 재무구조 건실성(부채비율)

재무구조의 건실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은 의료, 정밀, 과학기기를 생산하는 한국 화낙이 16.79%로 가장 낮은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신광마이크로엘렉트로닉스가 18.92%, 호텔롯데가 20.24%로 그 다음으로 낮은 부채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부채비율 평균이 1582.69%임을 볼 때 이는 매우 낮은 수치이다(자본잠식기업의 경우 부채비율 수치가 계산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기업은 편의상 10,000%로 처리함. 자본잠식기업의 부채비율을 제외했을 경우 평균 부채비율은 1186%임). 투자국별로는 일본이 23개의 기업 중 9개(39.1%)가 상위 20위에 들어가 있으며 업종별로는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가 8개의 기업 중 5개(62.5%)가 20위 안에 들어가 있다(〈표 12〉 참조).

업종에 따라 평균적인 부채비율 수준이 다를 가능성은 있지만, 대농 중공업, 한국 오티스엘리베이터는 97~99년 3년간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모토로라코리아, 세계양주, 한국로버트보쉬기전, 진방철강, 한국로슈, 아세아아세틸스는 일부 년도에 걸쳐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자본잠식기업의 경우 부채비율 수치가 계산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기업은 편의상 10,000%로 처리함). 상위 20위 기업이 100% 미만의 낮은 부

〈표 12〉 재무구조 건실성 상위 20위 기업

순위	회사명	투자국	업종	부채비율 (%)
1	한국화낙 주식회사	일본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16.79
2	한국신광마이크로에렉트로닉스 주식회사	일본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18.92
3	호텔롯데	일본	숙박업	20.24
4	한국삼미주식회사	일본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25.40
5	한국코카콜라보틀링주식회사	네덜란드	음식료품	25.89
6	한국미쓰이물산 주식회사	일본	도매 및 상품중개업	27.82
7	한국에어프리덕트주식회사	미국	화합물 및 화학제품	31.94
8	에어리퀴드코리아서비스주식회사	프랑스	전기,가스 및 증기업	32.48
9	한국파앤지주식회사	미국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33.89
10	금양오츠카케미칼주식회사	일본	화합물 및 화학제품	41.80
11	유니레버 코리아 주식회사	네덜란드	화합물 및 화학제품	43.69
12	힐라코리아 주식회사	네덜란드	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	46.74
13	한국베트로텍스 주식회사	프랑스	비금속광물	50.72
14	카길코리아 주식회사	미국	음식료품	52.36
15	한국알프스 주식회사	일본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54.85
16	동서석유화학주식회사	일본	화합물 및 화학제품	64.35
17	농심켈로그주식회사	미국	음식료품	64.87
18	로움코리아	싱가포르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67.34
19	웰라코리아주식회사(구: 명미화장품)	독일	화합물 및 화학제품	71.97
20	한국동광주식회사	일본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75.81

〈표 13〉 재무구조 건실성 하위 10위 기업

순위	회사명	투자국	업종	부채비율 (%)
95	씨멘스오토모티브주식회사	독일	자동차 및 트레일러	2126.94
96	모토로라코리아주식회사	홍콩	도매 및 상품중개업	3952.60
97	세계양주주식회사	캐나다	도매 및 상품중개업	4299.22
98	한국로버트보쉬기전주식회사	독일	자동차 및 트레일러	4868.15
99	진방철강	말레이시아	일차금속	6858.99
100	한국로슈	네덜란드	화합물 및 화학제품	8238.85
101	아세아아세틸스주식회사	영국	화합물 및 화학제품	8475.46
102	대농중공업주식회사	말레이시아	기타 기계 및 장비	10000.00
103	한국오티스엘리베이터 주식회사	미국	기타 기계 및 장비	10000.00
104	힐티코리아주식회사	네덜란드	기타 기계 및 장비	86984.89

채비율을 기록한 것에 비해 평균이 1582.69%나 된 것도 이러한 자본잠식기업의 부채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았기 때문이다.

업종별로는 기타기계 및 장비가 6개 기업 중 3개(50%)가 하위 10위에 들어 가장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표 13〉 참조).

3)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자동차 및 트레일러를 생산하는 한국지케이엔이 1802.98%로 가장 높은 매출액 증가율을 보였으며, 아세아아세틸스가 270.04%, 한국바스프가 161.51%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한국지케이엔의 이러한 높은 성장성은 1996년 7월에 설립되어 초기 매출 성장관계에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전체 매출액 증가율 평균은 45.43%이고, 도매

〈표 14〉 매출액 증가율 상위 20 위 기업

순위	회사명	투자국	업종	매출액 증가율(%)
1	한국지케이엔주식회사	영국	자동차 및 트레일러	1802.98
2	아세아아세틸스주식회사	영국	화합물 및 화학제품	270.04
3	한국바스프주식회사	독일	화합물 및 화학제품	161.51
4	케이티피	일본	화합물 및 화학제품	142.13
5	한국로버트보쉬기전주식회사	독일	자동차 및 트레일러	140.06
6	어필텔레콤	미국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125.35
7	이튼반도체주식회사	미국	도매 및 상품중개업	115.42
8	한국코카콜라보틀링주식회사	네덜란드	음식료품	100.70
9	한국엠손주식회사	일본	도매 및 상품중개업	90.79
10	에스케이에프한화자동차부품(주)	스웨덴	자동차 및 트레일러	86.64
11	모토로라코리아주식회사	홍콩	도매 및 상품중개업	76.55
12	한국오르본전장 주식회사	일본	자동차 및 트레일러	71.61
13	한국갬브로 주식회사	스웨덴	도매 및 상품중개업	71.02
14	듀폰포토마스쿠주식회사	미국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68.57
15	카본로렌코리아 주식회사	프랑스	화합물 및 화학제품	67.85
16	한국에어프러덕트주식회사	미국	화합물 및 화학제품	59.24
17	한국알프스 주식회사	일본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57.50
18	한국후지쯔주식회사	일본	도매 및 상품중개업	51.24
19	텍사스인스트루먼트코리아 주식회사	미국	도매 및 상품중개업	45.35
20	질레트코리아주식회사	미국	도매 및 상품중개업	42.37

〈표 15〉 매출액 증가율 하위 10위 기업

순위	회사명	투자국	업종	매출액 증가율(%)
95	삼성석유화학주식회사	미국	화합물 및 화학제품	-3.86
96	휠라코리아 주식회사	네덜란드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4.81
97	레고코리아주식회사	덴마크	가구 및 기타제조업	-5.83
98	한국동광주식회사	일본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7.62
99	진방철강	말레이시아	일차금속	-9.17
100	힐티코리아주식회사	네덜란드	기타 기계 및 장비	-12.82
101	한국오티스엘리베이터 주식회사	미국	기타 기계 및 장비	-12.89
102	영신퀴츠주식회사	일본	비금속광물	-17.39
103	어플라이드메타리얼스코리아(주)	미국	기타 기계 및 장비	-20.10
104	대농중공업주식회사	말레이시아	기타 기계 및 장비	-30.02

및 상품 중개업이 16개 기업 중 7개(약 44%)가 들어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표 14〉 참조).

하위의 10개 기업은 (-)의 매출액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대농중공업주식회사가 -30.02%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고, 어플라이드메타리얼스코리아가 -20.10%, 영신퀴츠가 -17.39%로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기타기계 및 장비가 6개 기업중 4개(74%)가 하위 10위에 들어 가장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표 15〉 참조).

3. 경제활성화 기여도 차원

1) 투자규모

외국인투자기업의 평균 투자규모는 5억 7천 353만 달러이다.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상위 20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계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 투자규모 상위권에 들어 있었다. 이 중 1위를 차지한 코카콜라보틀링 주식회사는 미국계 기업으로 네덜란드를 통해 우회투자를 한 것이고 2위인 호텔롯데는 투자규모 20위권에서 2개 밖에 안 되는 일본계 회사 중 하나이다(〈표 16〉 참조).

투자규모 측면에서 하위 10개 기업 중 5개 기업은 일본 기업들로 금양오츠카케미

〈표 16〉 투자규모 상위 20위 기업

순위	회사명	투자국	업종	투자액 (천달러)
1	한국코카콜라보틀링주식회사	네덜란드	음식료품	773,938
2	호텔롯데	일본	숙박업	668,671
3	한국피앤이주식회사	미국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250,879
4	한국바스프주식회사	독일	화합물 및 화학제품	223,592
5	쌍용제지주식회사	독일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89,156
6	엘지칼텍스정유주식회사	미국	코코스, 석유정제품 및 연료가공업	184,199
7	한국베트로텍스 주식회사	프랑스	비금속광물	172,848
8	유니레버 코리아 주식회사	네덜란드	화합물 및 화학제품	126,054
9	한국네슬레 주식회사	스위스	음식료품	125,783
10	한국쓰리엠주식회사	미국	도매 및 상품중개업	117,992
11	질레트코리아주식회사	미국	도매 및 상품중개업	111,683
12	에어리퀴드코리아서비스주식회사	프랑스	전기, 가스 및 증기업	110,494
13	한라공조주식회사	미국	자동차 및 트레일러	110,000
14	홍농종묘주식회사	미국	농업	102,119
15	삼성비피화학 주식회사	영국	화합물 및 화학제품	79,370
16	로디아코프랑주식회사	프랑스	화합물 및 화학제품	75,044
17	한국코닥주식회사	미국	화합물 및 화학제품	73,816
18	한국후지제록스주식회사	일본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64,194
19	한국그락소웰컴	영국	화합물 및 화학제품	61,388
20	어플라이드메터리얼스코리아(주)	미국	기타 기계 및 장비	57,129

〈표 17〉 투자규모 하위 10위 기업

순위	회사명	투자국	업종	투자액 (천달러)
95	한국존슨주식회사	미국	화합물 및 화학제품	14,156
96	한국아그파산업주식회사	벨기에	기타 기계 및 장비	14,000
97	파카하니핀커넥터	미국	고무 및 플라스틱	13,816
98	금양오츠카케미칼주식회사	일본	화합물 및 화학제품	13,658
99	휠라코리아 주식회사	네덜란드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13,606
100	한국신에츠실리콘 주식회사	일본	도매 및 상품중개업	13,541
101	한국오르본전장 주식회사	일본	자동차 및 트레일러	13,296
102	케피코	독일	자동차 및 트레일러	13,234
103	한국삼미주식회사	일본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13,153
104	롯데알미늄주식회사	일본	일차금속	13,097

칼, 한국신에츠실리콘, 한국오므론, 한국삼미, 롯데알루미늄이 있다(〈표 17〉 참조).

2) 고용규모

고용규모 측면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평균 489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유럽, 일본 기업들이 상위 20위권을 고루 차지하였고 이들 기업의 업종은 서비스업에서 제조업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표 18〉 참조).

종업원 수가 0인 아세아아세틸스 주식회사는 삼성비피화학에서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표 19〉 참조).

〈표 18〉 고용규모 상위 20위 기업

순위	회사명	투자국	업종	고용규모 (명)
1	캡스	아일랜드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광고업제외)	5,770
2	한국코카콜라보틀링주식회사	네덜란드	음식료품	2,880
3	엘지칼텍스정유주식회사	미국	코코스,석유정제품 및 연료가공업	2,750
4	호텔롯데	일본	숙박업	2,254
5	삼성코닝주식회사	미국	비금속광물	1,854
6	한라공조주식회사	미국	자동차 및 트레일러	1,660
7	한국아이비엠주식회사	미국	도매 및 상품중개업	1,620
8	유한김벌리주식회사	캐나다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1,398
9	한국후지제록스주식회사	일본	사무,계산 및 회계용 기계	1,260
10	한국휴렛팩커드주식회사	네덜란드	도매 및 상품중개업	1,188
11	동아오츠카 주식회사	일본	음식료품	1,110
12	한국피자헛 주식회사	네덜란드	숙박업	1,065
13	한국바스프주식회사	독일	화합물 및 화학제품	1,062
14	서울미라마주식회사	일본	숙박업	1,003
15	로움코리아	싱가포르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988
16	대성전기공업주식회사	미국	자동차 및 트레일러	828
17	쌍용제지주식회사	독일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797
18	롯데알미늄주식회사	일본	일차금속	779
19	한국피앤지주식회사	미국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691
20	케피코	독일	자동차 및 트레일러	690

〈표 19〉 고용규모 하위 10 위 기업

순위	회사명	투자국	업종	고용규모 (명)
95	케이티피	일본	화합물 및 화학제품	62
96	한국다우코닝주식회사	미국	화합물 및 화학제품	60
97	한국삼미주식회사	일본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56
98	이튼반도체주식회사	미국	도매 및 상품중개업	53
99	한국지케이엔주식회사	영국	자동차 및 트레일러	50
100	한국아그프산업주식회사	벨기에	기타 기계 및 장비	46
101	한국미쓰이물산 주식회사	일본	도매 및 상품중개업	43
102	울산피시픽화학 주식회사	홍콩	화합물 및 화학제품	41
103	에어리퀴드코리아서비스주식회사	프랑스	전기, 가스 및 증기업	31
104	아세아아세틸스주식회사	영국	화합물 및 화학제품	0

4. 무역수지 및 기술이전 기여도 차원

1) 무역수지(수출입차)

순수출액(수출입차) 한국바스프가 5,123만 달러의 순수출액을 기록하여 1위이며 한국미쓰이물산과 한국알프스가 각각 2,831만 달러와 2,635만 달러의 순수출로 2, 3위를 기록하였다. 업종별로는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가 8개 기업 중 4개(50%)가 상위 20위 안에 들어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표 20〉 참조).

업종별로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이 16개 기업 중 5개 기업(31%)이 하위 10위에 포함되어 가장 좋지 않은 성과를 보여 무역수지에 가장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하위를 차지한 엘지칼텍스정유 주식회사도 무역수지 기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산업 특성상 석유 등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아 수입액이 큰 데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표 21〉 참조).

2) 기술이전(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비의 평균 규모는 5억 4,748만 원이다. 국가별로는 독일 기업이 11개 기업 중 5개(45.5%)가 상위 20위권에 들어 있으며 업종별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10

〈표 20〉 무역수지 상위 20위 기업

순위	회사명	투자국	업종	수출-수입 (천달러)
1	한국바스프주식회사	독일	화합물 및 화학제품	51,232
2	한국미쓰이물산 주식회사	일본	도매 및 상품중개업	28,315
3	한국알프스 주식회사	일본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26,350
4	로디아코프랑주식회사	프랑스	화합물 및 화학제품	17,483
5	파카하니핀커넥터	미국	고무 및 플라스틱	16,144
6	한라공조주식회사	미국	자동차 및 트레일러	14,595
7	삼양화성 주식회사	일본	화합물 및 화학제품	13,809
8	한국베트로텍스 주식회사	프랑스	비금속광물	10,789
9	로움코리아	싱가포르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10,381
10	평화발레오	프랑스	자동차 및 트레일러	7,687
11	금양오츠카케미칼주식회사	일본	화합물 및 화학제품	5,629
12	한국신광마이크로에лект로닉스 주식회사	일본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5,277
13	한국에이엠피주식회사	미국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5,031
14	아세아아세틸스주식회사	영국	화합물 및 화학제품	4,289
15	울산퍼시픽화학 주식회사	홍콩	화합물 및 화학제품	3,831
16	진방철강	말레이시아	일차금속	2,795
17	대농중공업주식회사	말레이시아	기타 기계 및 장비	1,335
18	홍농종묘주식회사	미국	농업	939
19	케이티피	일본	화합물 및 화학제품	615
20	휠라코리아 주식회사	네덜란드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524

〈표 21〉 무역수지 하위 10위 기업

순위	회사명	투자국	업종	수출-수입 (천달러)
95	케피코	독일	자동차 및 트레일러	-73,107
96	한국후지쓰주식회사	일본	도매 및 상품중개업	-73,373
97	한국쓰리엠주식회사	미국	도매 및 상품중개업	-80,506
98	한국코닥주식회사	미국	화합물 및 화학제품	-93,895
99	모토로라코리아주식회사	홍콩	도매 및 상품중개업	-95,300
100	애그리브랜드푸리나코리아	미국	음식료품	-102,646
101	한국아이비엠주식회사	미국	도매 및 상품중개업	-111,003
102	삼성석유화학주식회사	미국	화합물 및 화학제품	-144,993
103	한국휴렛팩커드주식회사	네덜란드	도매 및 상품중개업	-233,104
104	엘지칼텍스정유주식회사	미국	코코스, 석유정제품 및 연료가공업	-3,384,088

〈표 22〉 연구개발투자 상위 20위 기업

순위	회사명	투자국	업종	연구개발비 (천원)
1	삼성코닝주식회사	미국	비금속광물	10,225,707
2	한독약품공업주식회사	독일	화합물 및 화학제품	4,770,127
3	홍농중묘주식회사	미국	농업	4,241,415
4	대성전기공업주식회사	미국	자동차 및 트레일러	3,799,998
5	동우화인켐주식회사	일본	화합물 및 화학제품	3,563,846
6	한국바스프주식회사	독일	화합물 및 화학제품	2,392,588
7	한국후지제록스주식회사	일본	사무,계산 및 회계용 기계	2,296,496
8	캠코	독일	자동차 및 트레일러	2,284,176
9	한국릴리제약주식회사	네덜란드	화합물 및 화학제품	1,835,879
10	케피코	독일	자동차 및 트레일러	1,818,553
11	아세아아세틸스주식회사	영국	화합물 및 화학제품	1,816,641
12	금호미쓰이화학주식회사	일본	화합물 및 화학제품	1,803,023
13	어필텔레콤	미국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1,679,766
14	한국다우코닝주식회사	미국	화합물 및 화학제품	1,456,817
15	듀폰포토마스쿠주식회사	미국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1,136,467
16	텍사스인스트루먼트코리아 주식회사	미국	도매 및 상품중개업	935,778
17	한국로버트보쉬기전주식회사	독일	자동차 및 트레일러	798,068
18	캡스	아일랜드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광고업 제외)	701,254
19	한국엡손주식회사	일본	도매 및 상품중개업	690,972
20	롯데알미늄주식회사	일본	일차금속	669,688

개중 4개(40%)로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1위인 삼성코닝 주식회사는 약 102억 2천5백만 원으로 2위인 한독약품공업 주식회사와 3위인 홍농중묘 주식회사의 연구개발비의 합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2〉 참조).

• 투자하지 않는 기업

40개의 기업은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기술이전(교육훈련투자)

교육훈련비 평균 규모는 1억 8,393만 원으로 상위 20위권 안에는 미국, 유럽, 일본

〈표 23〉 고용훈련투자 상위 20위 기업

순위	회사명	투자국	업종	교육훈련비 (천원)
1	한국아이비엠주식회사	미국	도매 및 상품중개업	3,536,134
2	삼성코닝주식회사	미국	비금속광물	1,658,799
3	한국휴렛팩커드주식회사	네덜란드	도매 및 상품중개업	1,361,236
4	어플라이드메터리얼스코리아(주)	미국	기타 기계 및 장비	858,883
5	모토로라코리아주식회사	홍콩	도매 및 상품중개업	719,630
6	유니레버 코리아 주식회사	네덜란드	화합물 및 화학제품	706,328
7	유한킴벌리주식회사	캐나다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569,695
8	한국후지제록스주식회사	일본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519,680
9	한국후지쯔주식회사	일본	도매 및 상품중개업	508,734
10	호텔롯데	일본	숙박업	479,347
11	한국코닥주식회사	미국	화합물 및 화학제품	400,487
12	동아오츠카 주식회사	일본	음식료품	391,533
13	한독약품공업주식회사	독일	화합물 및 화학제품	380,801
14	한국피앤지주식회사	미국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344,464
15	로움코리아	싱가포르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330,141
16	바이엘코리아주식회사	독일	화합물 및 화학제품	329,381
17	애그리브랜드퓨리나코리아	미국	음식료품	319,704
18	한라공조주식회사	미국	자동차 및 트레일러	276,945
19	금호미쓰이화학주식회사	일본	화합물 및 화학제품	253,288
20	한국네슬레 주식회사	스위스	음식료품	253,024

기업들이 고루 나타났고 업종별로 서비스업과 제조업간에도 차이가 없었다. 이중 교육훈련비에 가장 많이 투자한 기업은 한국아이비엠 주식회사, 삼성코닝 주식회사, 한국휴렛팩커드 주식회사 순으로 나타났다.

• 투자하지 않는 기업

12개의 기업은 교육훈련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투자국가별 분석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파나마,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의 투자는 영국, 독일, 프

랑스, 미국계 현지법인 및 지주회사에 의한 투자도 상당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경영건전성

ROA는 일본 기업이 대부분인 아시아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유럽이 가장 저조한 성과를 나타냈다. 부채비율은 유럽기업이 전반적으로 높는데 이는 네덜란드의 영향이다. 네덜란드가 특히 높은 이유는 힐티코리아나 휴렛 팩커드 같은 기업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기 때문이다. 매출액 증가율은 아시아와 북미 지역이 비슷한데 반해 유럽 기업이 높는데, 이는 영국 기업인 한국 지케이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표 24〉 참조).

2) 경제활성화 기여도

주요 투자국인 일본, 미국, 독일의 투자 규모가 비슷하며, 네덜란드가 가장 큰 투자 규모를 보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네덜란드를 포함하는 유럽이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했으며, 다음이 북미, 아시아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규모는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투자 규모가 큰 네덜란드 기업의 고용 인원이 가장 많다(〈표 25〉 참조).

〈표 24〉 투자지역별 경영건전성

투자지역	ROA(%)	부채비율(%)	매출액증가율(%)
아시아(30)	3.44	174.50	23.62
일본(23)	4.70	169.88	27.06
기타(7)	-0.70	189.69	12.33
북미(37)	2.81	211.01	25.35
미국(33)	2.86	197.50	25.72
기타(4)	2.44	322.45	22.28
유럽(37)	-0.08	2829.27	91.51
독일(11)	1.31	524.70	37.40
네덜란드(8)	0.33	11214.00	17.77
기타(18)	-1.11	511.07	157.35

〈표 25〉 투자지역별 경제활성화 기여도

투자지역	투자규모(천달러)	고용규모(명)
아시아(30)	47,154	421
일본(23)	54,763	441
기타(7)	22,153	356
북미(37)	51,185	478
미국(33)	52,365	474
기타(4)	41,454	509
유럽(37)	71,789	556
독일(11)	57,344	472
네덜란드(8)	134,535	790
기타(18)	52,730	503

2) 무역수지 및 기술이전 기여도

연구개발비와 교육훈련비는 전체적으로 볼 때 북미가 가장 많지만, 개별 국가별로 살펴보면 연구개발은 독일이, 교육훈련은 네덜란드가 선두임을 볼 수 있다. 일본이 투자 규모에 비해 연구개발이나 교육훈련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지리적인 근접성 때문에 현지화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수출-수입 항목에서는 미국 기업이 커다란 손실을 입고 있는데 그 이유는 97~99년 기간 동안의 환율 상승으로, 석유수입을 주로 하던 엘지칼텍스정유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엘지칼텍스정유를 제외한 평균값은 -26,307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지만 이전의 수치만큼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게 된다(〈표 26〉 참조).

6. 투자업종별 분석

1) 경영건전성(〈표 27〉 참조)

ROA 측면에서는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가 11.1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1개의 기업만 해당되는 농업을 제외하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2.44%로 가장 낮은 성과를 나타냈다. 부채비율은 제조업의 기타에서 가장 높는데 이는 힐티코리아와 대농

〈표 26〉 투자지역별 무역수지 및 기술이전 기여도

투자지역	연구개발비(천원)	교육훈련비(천원)	수출-수입(천달러)
아시아(30)	359,019	116,582	-9,525
일본(23)	441,308	104,674	-8,142
기타(7)	88,639	155,709	-14,070
북미(37)	689,558	271,615	-118,047
미국(33)	750,684	276,615	-128,058
기타(4)	185,269	230,361	-35,455
유럽(37)	558,220	145,867	-16,345
독일(11)	1,135,859	135,576	-18,152
네덜란드(8)	437,700	359,262	-34,703
기타(18)	258,782	57,314	-7,081

〈표 27〉 투자업종별 경영건전성

업종분류		ROA(%)	부채비율(%)	매출액 증가율(%)
농업(1)	농업(1)	-24.18	466.74	5.55
제조업(82)	화학물 및 화학제품(30)	2.17	398.64	36.13
	자동차 및 트레일러(10)	-2.44	602.58	220.23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8)	11.11	137.50	41.81
	기타(33)	1.02	2761.13	17.06
서비스업(21)	도매 및 상품중개업(16)	2.11	390.52	38.55
	기타(6)	5.22	168.97	19.25

중공업, 한국 오티스 엘리베이터 등의 자본잠식 기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제외하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602.58%로 높은 부채비율을 보인다. 매출액 증가율은 한국 지케이엔(1,802.98%)을 포함하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220.23%로 가장 높으며 다른 업종은 대체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2) 경제활성화 기여도(〈표 28〉)

투자규모는 숙박업을 포함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기타 항목이 1억 4천 5백만 달러로 가장 크며, 고용규모도 캡스나 호텔롯데를 포함하는 서비스업의 기타 항목이 가장

〈표 28〉 투자업종별 경제활성화 기여도

업종분류		투자규모(천달러)	고용규모(명)
농업(1)	농업(1)	102,119	393
제조업(82)	화합물 및 화학제품(30)	41,396	225
	자동차 및 트레일러(10)	33,264	526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8)	32,013	420
	기타(33)	78,226	570
서비스업(21)	도매 및 상품중개업(16)	36,241	352
	기타(6)	145,110	1,778

크다. 제조업의 기타항목과 농업을 제외하면, 투자규모 측면에서도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고용규모에서는 화합물 및 화학제품이 225명으로 가장 적음을 볼 수 있다.

3) 무역수지 및 기술이전(〈표 29〉)

97~99년에 우리나라 무역수지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업종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이다. 엘지칼텍스정유를 포함하는 제조업의 기타항목은 저조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도매 및 상품 중개업에서도 그다지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연구개발비는 농업을 제외하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가장 높으며, 교육훈련비는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이 가장 많다. 그 이유는 한국아이비엠, 한국 휴렛팩커드, 모토라 코리아, 한국 후지쯔 등이 교육훈련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9〉 투자업종별 무역수지 및 기술이전 기여도

업종분류		수출-수입(천달러)	연구개발비(천원)	교육훈련비(천원)
농업(1)	농업(1)	939	4,241,415	210,688
제조업(82)	화합물 및 화학제품(30)	15,361	665,197	113,567
	자동차 및 트레일러(10)	-9,383	932,009	97,433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8)	-3,505	430,456	50,251
	기타(33)	-119,842	454,609	177,055
서비스업(21)	도매 및 상품중개업(16)	-44,847	215,727	435,449
	기타(6)	-6,576	253,926	190,038

7. 종합 공헌도 분석

104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국민경제 공헌도를 평가한 결과 삼성코닝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한국바스프, 한국코카콜라보틀링, 한국롯데, 한국피앤지가 그 뒤를 이었다. 상위 20위 기업은 <표 30>과 같으며 상위 기업들은 경영건전성, 경제활성화 기여도, 무역수지 및 기술이전 기여도 차원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가별로는 미국기업이 33개 기업 중 9개가 상위 20위에 속해 있으며 네덜란드를 통한 우회투자를 고려할 경우 11개 기업이 속해 있다.

극단치를 조정하지 않은 경우와 가중치를 다르게 준 경우를 비교한 결과 상위 20위

<표 30> 종합공헌도 상위 20위 기업

순위	회사명	총점	건전성총점	활성화총점	무역수지총점
1	삼성코닝주식회사	10.98	5.46	7.90	8.84
2	한국바스프주식회사	10.26	4.41	6.84	4.61
3	한국코카콜라보틀링주식회사	9.10	2.98	6.43	4.33
4	호텔롯데	8.78	2.87	4.31	3.39
5	한국피앤지주식회사	5.47	2.79	4.20	3.34
6	한국아이비엠주식회사	4.79	2.56	4.10	2.96
7	어필텔레콤	4.79	1.87	3.22	2.90
8	캡스	4.73	1.72	3.19	2.38
9	한라공조주식회사	4.12	1.64	2.12	2.04
10	한국후지제록스주식회사	3.77	1.53	1.93	1.99
11	한독약품공업주식회사	3.72	1.47	1.80	1.99
12	대성전기공업주식회사	3.57	1.23	1.74	1.61
13	동우화인켄주식회사	3.47	1.23	1.69	1.51
14	로움코리아	3.07	1.21	1.65	1.32
15	한국지케이엔주식회사	2.88	1.20	1.54	1.29
16	텍사스인스트루먼트코리아 주식회사	2.62	1.08	1.33	1.13
17	한국피자헛 주식회사	2.45	0.97	1.21	0.77
18	홍농종묘주식회사	2.42	0.97	0.98	0.64
19	유니레버 코리아 주식회사	2.41	0.97	0.90	0.60
20	듀폰포토마스크주식회사	2.29	0.96	0.81	0.59

〈표 31〉 종합공헌도 하위 10위 기업

순위	회사명	총점	건전성총점	활성화총점	무역 수지 총점
95	영신퀴츠주식회사	-2.45	-1.24	-1.22	-1.23
96	한국셀주식회사	-2.74	-1.44	-1.23	-1.33
97	한국갬브로 주식회사	-2.91	-1.47	-1.26	-1.35
98	세계양주주식회사	-3.74	-2.21	-1.28	-1.40
99	힐티코리아주식회사	-4.39	-2.81	-1.30	-1.46
100	삼성석유화학주식회사	-4.68	-3.16	-1.30	-1.48
101	한국로슈	-4.94	-3.95	-1.34	-1.56
102	진방철강	-6.52	-5.05	-1.35	-1.91
103	대농중공업주식회사	-6.83	-5.15	-1.35	-3.71
104	한국오티스엘리베이터 주식회사	-11.05	-9.76	-1.37	-6.05

기업의 구성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극단치를 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흥농중묘, 유니레버코리아, 듀폰포트마스크 대신에 한국휴렛팩커드, 유한킴벌리, 한국네슬레가 상위 20권에 들어갔다. 가중치를 3-3.5-3.5로 준 경우에는 듀폰모토마스크 대신에 유한킴벌리가 상위 20권에 들어갔으며 가중치를 2-4-4로 준 경우에는 한국지케이엔, 텍사스인스트루먼트코리아, 듀폰포트마스크 대신에 유한킴벌리, 한국베트로텍스, 한국네슬레가 상위 20권에 들어갔다.

104개 외국인투자기업중에서 한국오티스엘리베이터가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하위 기업들은 특히 경영건전성 차원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기타 기계 및 장비가 6개 기업중 3개(50%)가 하위 10위에 포함되어 가장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표 31〉 참조).

IV. 결 론

97년 IMF경제위기 이후 그 이전의 시기에 비해 상당한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로 유입되면서 외국인투자의 효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기존 연구들은 외국인직접투자 총량이 경제성장, 고용, 기술 및 노하우 이전, 수출입 등과 같은 측면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총량적인 관점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전체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또는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하는 것은 다소 단순화된 분석일 수 있다. 개별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민경제적 효과는 투자기업의 특성과 전략에 따라 상당히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의 국민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에 있어, 기존의 외국인직접투자 총량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을 벗어나 개별 외국인투자기업 차원에서 분석해봄으로써 어떠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투자가 국민경제 관점에서 좀더 바람직한 투자인가를 판단하는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한편 개별 외국인투자기업 차원에서의 국민경제 공헌도 분석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 정책 차원에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유치에 있어서 국가의 외국인투자유치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투자유치 대상기업의 선정(targeting)과 국민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의 제공에 있어서 개별 외국인투자기업 차원에서의 국민경제 공헌도 분석이 체계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개별 외국인투자기업 차원의 분석은 아직 탐색적 연구의 단계이며 연구모델의 정밀화와 보다 광범위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연구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자료를 구할 수 없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시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기업자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조사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부 록〉

1. 종합 공헌도분석 | (극단치 미수정)

순위	회사명	투자국	업종설명(2-digit)	총점
1	삼성코닝주식회사	미국	비금속광물	12.55
2	한국아이비엠주식회사	미국	도매 및 상품중개업	9.63
3	한국코카콜라보틀링주식회사	네덜란드	음식료품	9.52
4	호텔롯데	일본	숙박업	9.33
5	한국지케이엔주식회사	영국	자동차 및 트레일러	7.57
6	캡스	아일랜드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 (광고업 제외)	7.19
7	한국바스프주식회사	독일	화합물 및 화학제품	4.19
8	어필텔레콤	미국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3.79
9	한국휴렛팩커드주식회사	네덜란드	도매 및 상품중개업	3.45
10	한독약품공업주식회사	독일	화합물 및 화학제품	3.06
11	한국후지제록스주식회사	일본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2.74
12	한국피앤지주식회사	미국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2.59
13	대성전기공업주식회사	미국	자동차 및 트레일러	2.51
14	한라공조주식회사	미국	자동차 및 트레일러	2.32
15	동우화인켐주식회사	일본	화합물 및 화학제품	2.27
16	유한김벌리주식회사	캐나다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2.15
17	로움코리아	싱가포르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2.10
18	한국네슬레 주식회사	스위스	음식료품	2.01
19	한국피자헛 주식회사	네덜란드	숙박업	1.97
20	텍사스인스트루먼트코리아 주식회사	미국	도매 및 상품중개업	1.96

2. 종합 공헌도분석 II(극단치 수정)

순위	회사명	투자국	업종설명(2-digit)	총점
1	삼성코닝주식회사	미국	비금속광물	10.98
2	한국바스프주식회사	독일	화합물 및 화학제품	10.26
3	한국코카콜라보틀링주식회사	네덜란드	음식료품	9.10
4	호텔롯데	일본	숙박업	8.78
5	한국피앤이주식회사	미국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5.47
6	한국아이비엠주식회사	미국	도매 및 상품중개업	4.79
7	어필텔레콤	미국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4.79
8	캡스	아일랜드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광고업제외)	4.73
9	한라공조주식회사	미국	자동차 및 트레일러	4.12
10	한국후지제록스주식회사	일본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3.77
11	한독약품공업주식회사	독일	화합물 및 화학제품	3.72
12	대성전기공업주식회사	미국	자동차 및 트레일러	3.57
13	동우화인켐주식회사	일본	화합물 및 화학제품	3.47
14	로움코리아	싱가포르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3.07
15	한국지케이엔주식회사	영국	자동차 및 트레일러	2.88
16	텍사스인스트루먼트코리아 주식회사	미국	도매 및 상품중개업	2.62
17	한국피자헛 주식회사	네덜란드	숙박업	2.45
18	홍농종묘주식회사	미국	농업	2.42
19	유니레버 코리아 주식회사	네덜란드	화합물 및 화학제품	2.41
20	듀폰포토마스쿠주식회사	미국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2.29
21	유한김벌리주식회사	캐나다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2.21
22	한국네슬레 주식회사	스위스	음식료품	2.17
23	한국알프스 주식회사	일본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2.16
24	한국베트로텍스 주식회사	프랑스	비금속광물	1.64
25	한국엡손주식회사	일본	도매 및 상품중개업	1.42
26	로디아코프랑주식회사	프랑스	화합물 및 화학제품	1.34
27	어플라이드메터리얼스코리아(주)	미국	기타 기계 및 장비	1.32
28	금호미쓰이화학주식회사	일본	화합물 및 화학제품	1.23
29	한국쓰리엠주식회사	미국	도매 및 상품중개업	1.01
30	평화발레오	프랑스	자동차 및 트레일러	0.96
31	아세아아세틸스주식회사	영국	화합물 및 화학제품	0.82

순위	회사명	투자국	업종설명(2-digit)	총점
32	캡코	독일	자동차 및 트레일러	0.67
33	웰라코리아주식회사 (구:명미화장품)	독일	화합물 및 화학제품	0.56
34	한국휴렛팩커드주식회사	네덜란드	도매 및 상품중개업	0.45
35	쌍용제지주식회사	독일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0.42
36	엘지칼텍스정유주식회사	미국	코코스, 석유정제품 및 연료가공업	0.35
37	동아오츠카 주식회사	일본	음식료품	0.33
38	서울미라마주식회사	일본	숙박업	0.26
39	케이티피	일본	화합물 및 화학제품	0.22
40	삼성지이의료기기 주식회사	미국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0.02
41	한국후지쓰주식회사	일본	도매 및 상품중개업	-0.22
42	농심켈로그주식회사	미국	음식료품	-0.28
43	바이엘코리아주식회사	독일	화합물 및 화학제품	-0.30
44	케피코	독일	자동차 및 트레일러	-0.32
45	한국신광마이크로에лект로닉스 주식회사	일본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0.34
46	에어리퀴드코리아서비스주식회사	프랑스	전기, 가스 및 증기업	-0.37
47	롯데알미늄주식회사	일본	일차금속	-0.38
48	한국다우코닝주식회사	미국	화합물 및 화학제품	-0.48
49	한국존슨주식회사	미국	화합물 및 화학제품	-0.49
50	데이콤시스템테크놀로지	미국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	-0.50
51	한국미쓰이물산 주식회사	일본	도매 및 상품중개업	-0.50
52	금양오츠카케미칼주식회사	일본	화합물 및 화학제품	-0.51
53	파카하니핀커넥터	미국	고무 및 플라스틱	-0.52
54	한국그락소웰컴	영국	화합물 및 화학제품	-0.53
55	한국화이자주식회사	파나마	화합물 및 화학제품	-0.53
56	한국릴리제약주식회사	네덜란드	화합물 및 화학제품	-0.68
57	한국에이엠피주식회사	미국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0.69
58	질레트코리아주식회사	미국	도매 및 상품중개업	-0.75
59	카본로렌코리아 주식회사	프랑스	화합물 및 화학제품	-0.77
60	휠라코리아 주식회사	네덜란드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0.83
61	카길코리아 주식회사	미국	음식료품	-0.87
62	삼성비피화학 주식회사	영국	화합물 및 화학제품	-0.88
63	삼양화성 주식회사	일본	화합물 및 화학제품	-0.89

순위	회사명	투자국	업종설명(2-digit)	총점
64	두산씨그램주식회사	캐나다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	-0.89
65	한국화낙 주식회사	일본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0.89
66	이튼반도체주식회사	미국	도매 및 상품중개업	-0.94
67	한국에어프리덕트주식회사	미국	화합물 및 화학제품	-1.01
68	오스람코리아주식회사	독일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 장치	-1.12
69	한국오르본전장 주식회사	일본	자동차 및 트레일러	-1.23
70	한국애보트 주식회사	미국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26
71	한국동광주식회사	일본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1.30
72	프렉스에어코리아주식회사	미국	화합물 및 화학제품	-1.31
73	동서석유화학주식회사	일본	화합물 및 화학제품	-1.31
74	씨멘스오토모티브주식회사	독일	자동차 및 트레일러	-1.33
75	한국캐스트롤 주식회사	영국	코코스, 석유정제품 및 연료가공업	-1.38
76	한국엔에스케이주식회사	일본	기타 기계 및 장비	-1.48
77	한국안전유리 주식회사	싱가포르	비금속광물	-1.50
78	대한정밀화학주식회사	독일	화합물 및 화학제품	-1.53
79	서울하인즈	미국	음식료품	-1.58
80	한국다우케미칼 주식회사	미국	화합물 및 화학제품	-1.63
81	한국암웨이 주식회사	미국	화합물 및 화학제품	-1.65
82	한국로버트보쉬기전주식회사	독일	자동차 및 트레일러	-1.65
83	한국노바티스주식회사	스위스	도매 및 상품중개업	-1.75
84	모토로라코리아주식회사	홍콩	도매 및 상품중개업	-1.80
85	에스케이에프한화자동차부품(주)	스웨덴	자동차 및 트레일러	-1.85
86	울산퍼시픽화학 주식회사	홍콩	화합물 및 화학제품	-1.91
87	한국신에츠실리콘 주식회사	일본	도매 및 상품중개업	-1.92
88	한국아그파산업주식회사	벨기에	기타 기계 및 장비	-1.96
89	레고코리아주식회사	덴마크	가구 및 기타제조업	-2.04
90	애그리브랜드퓨리나코리아	미국	음식료품	-2.20
91	한국삼미주식회사	일본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2.23
92	알바니인터내셔널코리아주식회사	미국	도매 및 상품중개업	-2.33
93	한국코닥주식회사	미국	화합물 및 화학제품	-2.36
94	아그파코리아주식회사	벨기에	도매 및 상품중개업	-2.39

순위	회사명	투자국	업종설명(2-digit)	총점
95	영신퀴츠주식회사	일본	비금속광물	-2.45
96	한국셀주식회사	홍콩	화합물 및 화학제품	-2.74
97	한국갬브로 주식회사	스웨덴	도매 및 상품중개업	-2.91
98	세계양주주식회사	캐나다	도매 및 상품중개업	-3.74
99	힐티코리아주식회사	네덜란드	기타 기계 및 장비	-4.39
100	삼성석유화학주식회사	미국	화합물 및 화학제품	-4.68
101	한국로슈	네덜란드	화합물 및 화학제품	-4.94
102	진방철강	말레이시아	일차금속	-6.52
103	대농중공업주식회사	말레이시아	기타 기계 및 장비	-6.83
104	한국오티스엘리베이터 주식회사	미국	기타 기계 및 장비	-11.05

3. 종합 공헌도 분석 III(가중치 3-3.5-3.5)

순위	회사명	투자국	업종설명(2-digit)	총점
1	삼성코닝주식회사	미국	비금속광물	38.33
2	한국바스프주식회사	독일	화합물 및 화학제품	34.63
3	한국코카콜라보틀링주식회사	네덜란드	음식료품	31.36
4	호텔롯데	일본	숙박업	30.57
5	한국피엔지주식회사	미국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8.80
6	캡스	아일랜드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광고업 제외)	16.49
7	한국아이비엠주식회사	미국	도매 및 상품중개업	16.43
8	한라공조주식회사	미국	자동차 및 트레일러	14.35
9	어필텔레콤	미국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14.03
10	한국후지제록스주식회사	일본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13.61
11	한독약품공업주식회사	독일	화합물 및 화학제품	13.21
12	대성전기공업주식회사	미국	자동차 및 트레일러	12.43
13	동우화인켄주식회사	일본	화합물 및 화학제품	11.55
14	로움코리아	싱가포르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10.14
15	홍농중묘주식회사	미국	농업	9.86
16	유니레버 코리아 주식회사	네덜란드	화합물 및 화학제품	8.88
17	한국지케이엔주식회사	영국	자동차 및 트레일러	7.86
18	한국피자헛 주식회사	네덜란드	숙박업	7.77
19	텍사스인스트루먼트코리아 주식회사	미국	도매 및 상품중개업	7.73
20	유한김벌리주식회사	캐나다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7.46

4. 종합 공헌도 분석 IV(가중치 2-4-4)

순위	회사명	투자국	업종설명(2-digit)	총점
1	삼성코닝주식회사	미국	비금속광물	43.51
2	한국바스프주식회사	독일	화합물 및 화학제품	35.92
3	호텔롯데	일본	숙박업	34.48
4	한국코카콜라보틀링주식회사	네덜란드	음식료품	34.45
5	한국피앤이주식회사	미국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20.52
6	캡스	아일랜드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 (광고업제외)	18.71
7	한국아이비엠주식회사	미국	도매 및 상품중개업	17.83
8	한국후지제록스주식회사	일본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16.76
9	한라공조주식회사	미국	자동차 및 트레일러	16.17
10	한독약품공업주식회사	독일	화합물 및 화학제품	15.63
11	홍농종묘주식회사	미국	농업	15.29
12	대성전기공업주식회사	미국	자동차 및 트레일러	14.00
13	유니레버 코리아 주식회사	네덜란드	화합물 및 화학제품	11.45
14	동우화인켄주식회사	일본	화합물 및 화학제품	11.44
15	로움코리아	싱가포르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9.87
16	어필텔레콤	미국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8.24
17	유한킴벌리주식회사	캐나다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7.79
18	한국베트로텍스 주식회사	프랑스	비금속광물	6.97
19	한국네슬레 주식회사	스위스	음식료품	6.75
20	한국피자헛 주식회사	네덜란드	숙박업	6.55

참고문헌

- 김진용·이정진 (2000).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사통계월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경제난 극복의 지름길-외국인 투자. 자료논문 98-13.
 박병관 (2000). 주한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생산성 비교. 주간경제.
 박병관 (2000). 지표로 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성과. 주간경제.

- 산업연구원 (2001). *외국인 직접투자의 일석오조 효과분석*. 서울: 산업연구원.
- 산업자원부 (2000). *2000년 무역, 외국인투자 진흥대책*. 서울: 산업자원부.
- 장윤중, 전주성 (2000). *글로벌경제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서울: 산업연구원.
- Alter, R. (1995). Foreign Direct Investment, Trade and Employment: Overview on Analytical and Economic Policy Issue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Trade and Employment*, OECD.
- Balasubramanyam, V. N., Salisu, M., and Sapsford, David (1996).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Growth in EP and IS countries. *The Economic Journal*, 106(434).
- Borensztein, E., J. de Gregorio, and J. Lee (1995). How Does Foreign Direct Investment Affect Economic Growth. *NBER Working Paper* No. 5057.
- Caves, R. E. (1996). *Multinational Enterprise and Economic Analysi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en, Edward K. Y.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Technology Diffusion in Hong Kong Manufacturing. *Applied Economics*, 15(3)
- Corona, Rossana (1996). Impact of Privatization in Mexico on Economic Efficiency and Market Structure: Analysis of Five Companies. In William Glade (ed.) *Bigger Economics, Smaller Governments-Privatization in Latin America*. U.S.: Westview Press.
- E. Borensztein (1998). How does foreign direct investment affect economic growth?.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5(1).
- Findlay, Ronald (1978). Some aspects of technology transfer and direct foreign investmen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68(2).
- Goldberg, L. S., and M. W. Klein (1997). Foreign Direct Investment, Trade and Real Exchange Rate Linkages in Southeast Asia and Latin America. *NBER Working Paper* No. 6344.
- John, Dunning (1998). *American Investment in British Manufacturing Industry*. London and NY; Routledge.
- K. Kojima (1978). *Direct Foreign Investment: A Japanese Model of Multinational Business Operations*. N.Y.: Praeger Publishers.
- Kim, J. D. (1997).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KIEP Working Paper* 97-01.

- Kim, J. D., and S.I. Hwang (1998).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Productivity Effects and Implication for the Currency Crisis. *KIEP Working Paper* 98-04.
- McAleese, D., and D. McDonald (1978). Employment Growth and the Development of Linkages in Foreign-Owned and Domestic Manufacturing Enterprises. *Oxford Bull. Econ., Statist.* 40.
- Neil, Hood and Stephen Young (1979). *The Economics of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and NY: Longman
- Reuber, G. L. et al. (1973). *Private Foreign Investment in Development*. Oxford: Clarendon Press.
- Sanchez, Manuel (1996). Fiscal Impact of Privatization in Mexico. In William Glade (ed.), *Bigger Economies, Smaller Governments-Privatization in Latin America*. U.S.: Westview Press.
- Svedberg, P. (1977). *Foreign Investment and Trade Policies in an International Economy with Transnational Corporation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y with References to Latin America*. Stockholm: privately printed.
- UNCTAD (1999). *World Investment Report*. NY : U.N. Press
- Wang, Jian Ye (1992). Foreign Investment and Technology Transfer: A Simple Model. *European Economic Review*, 36(1).

The Contribution of Foreign Multinationals to the Korean Economy

Dong-Kee Rhee*

Je-Ho Lee**

ABSTRACT

The paper analyzed the contribution of foreign multinationals to the Korean economy, which was measured by management performance, contribution to economic growth, and impact on balance of payment and technology transfer. We selected 104 foreign multinationals in Korea, based on investment size, ownership structure and data availability. The result showed that Appeal Telecom, Fanuc Korea Corporation, Coca-Cola Korea Bottling and Korea BASF achieved the highest scores on the overall contribution measures. The data in this study suggested that while MNCs made a net contribution to Korean investment, employment and R&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ir contribution measures. Such differences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 when designing measures. Such differences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 when designing government policies to attract more foreign-woned companies into Korea.

Keywords: Foreign direct investment, Economic contribution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sultant, Intergen Consulting Group.